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6. 선종의 사구계(1)

6조 혜능(638~713)의 단상 말씀은 <법보단경(法寶壇經)>이라 할 만큼, 선종사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다. 이 단경의 가르침을 한 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돈오법문(頓悟法門)이다. 돈오법문을 가장 알맞고 명료하게 요약한 사구계(四句偈)가 바로 아래 계송이다. 물론 혜능 당대에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사구계는 선종의 특질을, 혜능의 사상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見性成佛

문자에 매이지 않는다(不立文字) 여기서 문제가 되는 '입(立)'은 세운다, 정립한다는 뜻이다. 불립문자의 전체적

고 사라짐에 양변을 여의고 일체 법을 설하는데 자성을 여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법을 묻는 사람에게 설법은 반드시 상으로 하여 대법을 사용하여 오고 감에 서로 원인이 되게끔 하여 마지막에 두 법을 다 제거하여 다시 갈 곳이 없게 해야 한다. <단경> '법문대시' 제9 즉 두 극단의 상호 관제에서 중도(中道)의 의미가 자연 드러난다. 여기의 중도는 혜능이 말하는 자성으로 일한다.

'만일 완전한 공에 집착하면 곧 무명을 기르는 것입니다. 공에 집착하는 사람은 경전을 비방하면서 바로 문자를 쓰지 않

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또 말하되 공은 도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不立文字) 하지만, 곧 이 불의 두 글자도 또한 문자의 형상임을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남이 말하는 것을 보고, 곧 비방하면서 문자에 집착했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미혹한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지, 어찌 부처님 경전을 비방할 것이겠습니까."

불립문자에 대한 6조의 견해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음이 아니라 문자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함을 말한다. 이것은 지혜와 관계가 있다. 반야(般若)라, 곧 지혜의 완성은 중도이고 견성(見性)이다. 자성(自性)을 본 사람은 지혜를 완성한 사람이어서 모든 사물에 자연 응답을 하며, 또한 응답을 할 줄 안다. 6조는 '스스로 미망을 제거하여 내외명월(內外明徹)되면 자성 가운데 만법이 모두 나타난다. 견성한 사람도 이와 같다.' <단경> 제9 '전환참회'

"견성한 사람은 세워야 할지 세우지 말아야 할지 험히 않나. 그것은 가고 올이 자유로워 머뭇거리고 없고 걸림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사물에 순응하여 움직이며 말에 알맞게 응하여 대답을 하며, 자성을 여의지 않고 모든 상황에 자기 처신을 합니다. 이렇게 자재신통을 얻어 유희삼매에 듭니다. 이것의 이름이 견성입니다." <단경> 제7 '남문복집'

'불립문자'는 문자에 대한 집착 경계한 것 지혜의 완성은 중도를 통해 가능하며 가고 올이 자유롭고 걸림이 없으면 '견성'

문자를 세우지 않고 불립문자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니 敎外別傳 사람의 마음을 곧 바로 가리키니 直指人心 자성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

이해는 언어나 문자에 매달리지 않아야 하며, 단지 불립문자란 자구에 집착하여 고지식하게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편집된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나 죽은 후에 그대들은 한 곳에 스승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법문과 율칙이고 사용함(動用)에 36대를 말하고, 또 나아가

는다고 말하지만, 이미 문자를 쓰지 않는다. 활자, 사람과 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하겠으나, 이 말 또한 문자의 형상입니다.' <육조단경> 제9 '법문대시'

이어서 글자 그대로 '문자를 세우지 않음'(不立文字)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가재미 문태준 | 문학과자성사 | 6000원

문태준(1970~) 시집의 표제시인 '가재미'는 병원에서 암투병중인 어머니로 상징되는 '그녀'와 '그녀'의 아들로 상징되는 화자인 '나'가 교감하는 아름다운 시이다. '그녀'를 열 네 번이나 반복하며 '그녀'의 현재와 일생을 반추한다. '그녀'가 산 소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을 바

법으로 동일한다. 그의 명작 '극빈'이 그렇다. 열무를 심어놓고 게을러 뿌리를 놓치고 즐기를 놓치고 가까스로 꽃을 얻었다 공중에 흰 열무꽃이 파다하다

무엇이나 한 나비처럼 환하다. 그러면서 "뿌리를 놓치고 즐기를 놓치고 내줄 것이/ 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이/ 살아오는 동안 나에겐 없었다"는 자성의 인식이 만나는 구조를 갖는다. 화자가 게으르기 때문에 현실적 실리를 놓쳐서 얻은 심미적 아름다움은 채소와 꽃은

선적·생태적 상상력 풍부하게 활용

닥에 납작 엎드려 사는 '가재미'로 비유한다. 그 '가재미' 앞에 화자인 '나'도 가재미로 나란히 누워 사랑을 표시하고, '그녀'도 '나'를 적서 준다. 병환중인 어머니와 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방식이 나란한 수평의 관계로 완성된다. 이런 걸작을 만들어내는 문태준은 다른 많은 시에서 불교의 선적 상상력을 창작방

채소밭에 꽃밭을 가꾸었느냐 사람들은 묻고 나는 망설이는데 그 문답 끝에 나비 하나가 나비가 데려온 또 하나의 나비가 흰 열무꽃이 같은 나비 떼가 흰 열무꽃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후략)

로 비유되며, 이 꽃마저 나비에게 주어버리는 '극빈'의 경지에 도달한다. 그런데 그 도달하는 방법이 "내 열무밭은 꽃밭이지만/ 나는 비로소 나비에게 꽃마저 잃었다"는 선적 상상이다. 그의 많은 시에는 사람과 벌레가 수평관계를 맺듯이 생태적 상상력도 풍부하다. 그중 '벌레詩'가 빼어나다.



시인이랍시고 종일 허안 종이만 감이먹던 나에게 작은 새발이 가꾸는 행복이 생겼다 내가 찾고 왕왕 벌레가 찾아 벌레와 나의 공동 소유인 밭을 벌레詩라 불러주었다 나와 벌레는 한 컵을 먹는 관계요 나의 벌레는 無錢의 푸른 구멍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유일한 노동은 단단한 턱으로 물렁물렁한 구멍을 만드는 일 꽃과 잎과 문장의 숨통을 통고르게 터주는 일 한 울 한 울 다 끄집어내면 환하고 푸르게 흘러지는 그늘 의 외떡벌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선촌 대표

6 두 가지 부꾸미죽

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온몸이 나른해지고 졸음도 오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짙어서 사는 스님들도 다들 바가 없 습니다. 이럴 때 공양간에서는 스님 들의 몸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보 양식을 만들곤 합니다.

피부질환을 진정시켜주기도 합니다. 여름철 더위를 타는 것도 예방해주시 불철 건강식품으로 녹두만한 것을 찾 기 힘들 것입니다. 녹두를 꼭 삶아 그 물만 자주 따라 마셔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팔 역시 이 노작용과 체 내의 불필요 한 수분을 배 출시키는 작 용이 탁월합니다. 비타민 B1이 포함 되어 있어 입맛 없는 불철 소화흡수율 도와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녹두와 팥을 이용한 수수부 꾸미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녹두는 해독 및 피부질환 진정 효과 그중 대표적 인 것이 녹두 를 이용한 음 식입니다. 녹두는 불철 나른해진 몸을 가볍게 만들고 겨울철에 썩은 군살도 빠 지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녹두는 해독 작용은 물론 여드름 이나 뽀루지 같이 열로 인해 나타나는

팔 역시 이 노작용과 체 내의 불필요 한 수분을 배 출시키는 작 용이 탁월합니다. 비타민 B1이 포함 되어 있어 입맛 없는 불철 소화흡수율 도와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녹두와 팥을 이용한 수수부 꾸미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팥 수수부꾸미죽

녹두 수수부꾸미죽

녹두 수수부꾸미죽

재료: 녹두, 수수, 찹쌀, 버섯, 숙배추(양배추도 좋음), 후추, 식용유, 소금, 깨소금

- 1. 수수를 3시간 정도 물에 담갔다 익혀서 곱게 간다.
2. 버섯과 숙배추는 곱게 채썬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버섯을 먼저 볶다가 숙 배추를 넣어 볶고 소금, 후추, 깨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3. 익혀서 간 수수를 8.5cm 크기의 동그란 전으로 부친 후 버섯과 배추를 속으로 넣어 반달 모양으로 접는다.
4. 녹두와 찹쌀을 넣어 죽을 끓인다.
5. 수수부꾸미를 한입 크기로 썰어 그릇에 담고 그 위에 녹두죽을 끼얹어 낸다.

팥 수수부꾸미죽

재료: 수수, 고구마, 팥, 꿀, 계피, 유자(금귤도 좋음)

- 1. 수수를 3시간 정도 물에 담갔다 익혀서 곱게 간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8.5cm 정도 크기로 전을 부친다.
2. 유자는 껍질을 까서 곱게 채 썰고, 유자 속은 칼로 잘 다진다. 폭 삶은 고구마를 으개 유자 껍질과 속을 잘 섞는다.
3. 수수부꾸미 속에 유자와 고구마 섞은 것을 넣고 반달로 접는다. 이때 내용물이 나오지 않도록 부꾸미의 끝을 잘 눌러준다.
4. 팥을 물에 폭 삶아 죽을 만들고 계피로 향을 낸 다음 꿀을 곱게 끼얹는다.
5. 수수부꾸미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그릇에 담고 팥죽을 올려서 낸다.

Advertisement for CCTV cameras. Text: 고성능 CCTV 카메라를 원하시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옥천대성사 예철스님. 250만원 (설치비포함). 043-732-5560, 011-9422-8453. 전화문의. 안전 카메라 시스템으로 사찰재산 안전하게!!!

Advertisement for a sutra. Text: 5,175字 장엄한 불교 최고의 경전 금강경 족자. 2007년 정해 돼지해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삼가 기원 드립니다. 금번 소개하는 금강경 이 작품은 방대한 금강경 5,175字를 延禪스님 이 각고의 노력으로 족자 한 면에다 금분으로 직접 써서 정성들어 만든 최고의 작품입니다. 가격: 32만원 -> 16만원. 크기: 세로 180cm X 가로 78.5cm. 사주명리 추명학. 사불사금강불교문화연구원. 전화 051)806-0316 / 휴대전화 011-488-0316 정담 延禪 합창